



교원 양성체제 개편의 쟁점과 개선 방향 : 구조적 측면

김 명 수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I. 문제제기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사의 교육력 제고를 통한 우수 인재의 육성이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명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의 교원 양성체제로는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적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교육계 내·외부로부터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더욱이 2004년 3월 교원 임용시험에서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던 가산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라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교원임용을 비롯하여 교원 양성체제 전반의 개편 논의에 관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교원 양성체제 개편 추진단'의 구성으로 가시화되었다. 교원 양성체제 개편추진단에서는 교원 양성체제 전반에 걸친 문제를 점검하고 교원 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

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계 내·외부로부터의 변화 요구에 직면한 교원양성기관 스스로도 발전적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맥락을 토대로 하여 '교원 양성체제 개편의 쟁점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교원 양성체제 개편의 준거로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현행 교원 양성체제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의 준거

교원 양성체제의 개편·발전방향을 논의할 때 '개편된 양성체제는 교원의 선발, 양성, 임용에 이르기까지 국가·사회적인 책무를 다할 수 있는가?', '교원 양성체제의 개편 및 발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교사의 전문성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행 교원 양성체제의 개편에 대

한 논의는 교육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교원양성기관은 학생선발에서부터 임용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 양성체제의 개편은 그 과정과 결과가 국가·사회적인 책무를 제고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사회는 교원양성기관이 탁월한 학문적 자질, 전인적인 품성, 그리고 투철한 교육관을 가진 교원을 양성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양성기관의 노력이 바로 사회로부터 교원 양성기관에게 주어진 기대와 책무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러한 교원 양성기관의 책무성은 교직적격자의 선발 및 양성과정 뿐만 아니라 임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말하며, 교원 양성기관의 책무성 실현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교원양성기관 스스로가 책무성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없다면 예비 교원을 교육함에 있어서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체적 노력이 소극적이게 되고 이는 곧바로 교원교육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송광용, 2004: 12), 교원 양성기관의 국가·사회적 책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Ⅲ. 교원 양성체제의 현황과 쟁점

최근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폐쇄성으로 인한 문제와 중등교원 양성의 과다로 인한 지나친 과잉공급 및 질 저하 현상 등의 문제들은 교원

양성기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목적형 체제로, 중등교원 양성기관은 목적형과 개방형의 장점을 살린 절충형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초등교원의 양성은 일반대학으로부터 분리·독립된 목적대학인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및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학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등교원의 양성은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대학 교육학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김명수, 2002).

초등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인 사범학교에서 2년제 초급대학과정을 거쳐 학사과정으로 수업연한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양성체제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초등교사만을 양성하는 폐쇄성·경직성으로 인해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중등교원 양성체제는 목적형의 사범대학과 개방형의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절충형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들이 거의 모든 교과에 대하여 교직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그 결과 그 교직과정에 속하는 학생 수가 사범대학의 학생 수보다 훨씬 많아 사범대학의 존립 근거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중등교사의 과잉배출로 인해 야기되는 교사 자격증의 전문적 권위 저하도 중등교원 양성체제와 관련하여 자주 지적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한편, 대학원 수준의 교원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도 초·중등교원 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학원

“

현재 초·중등교원 양성체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총론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양성기관들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 통합 방식은 종합대학의
울타리 속에 교육대학을 사범대학으로 통합하거나 교육대학을 발전적으로
종합화하는 방안, 교육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등이 고려되고 있다.

”

수준의 교원 양성체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정책적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사안이다. 대학원 수준의 교사양성체제는 교사의 자격요건을 높임으로써 현재보다 교사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교육기간이 늘어나게 될 경우 과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인지, 늘어난 기간만큼 현재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일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신상명, 2002: 150).

한편 유아교육법의 제정과 함께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영·유아 교육담당 교사 양성체제도 함께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교사 자격증(2급 정교사)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3년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아동학과, 아동가족학과, 아동복지학과 등의 아동학 관련

학과에서 소정의 교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대학에서도 유아교육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졸업자에게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처럼 유치원 교사의 양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유치원 교사 자격증은 2·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든 4년제 대학을 졸업하든 모두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조형숙·이경민, 2004).

IV. 교원 양성체제 개편 방안

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대학으로서 교원 양성대학은 일반 대학과는 다른 전문적 양성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현재 초·중등교원 양성체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교육대학과 사범대학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총론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양성기관들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양성기관들 간의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이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 통합 방식은 종합대학의 울타리 속에 교육대학을 사범대학으로 통합하거나 교육대학을 발전적으로 종합화하는 방안, 교육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등이 고려되고 있다.

초·중등교원 양성기관의 통합이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의 문제는 다자간의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 현행 초·중등교원 양성체제의 통합에 관한 논의는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양성기관을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초·중등교원 양성체제의 개편이 교육대학을 종합대학 내의 사범대학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는 초등교원의 양성에서도 중등교원의 양성에서처럼 공급과잉이라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단기적으로는 교육대학과 인근 사범대학을 포함한 종합대학이 컨소시엄을 통한 학점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교육대학이 양성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비교적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대학의 규모로는 교과 내용학에 관련된 충분하고 다양한 교과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중등교사 양성기관인 사범대학의 교원 양성체제를 재구조화하여 종합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통합교원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목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통합교원 양성체제는 유·초·중등교사를

모두 양성할 수 있는 종합교원 양성체제이므로 다양한 복수전공의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복수전공의 운영은 중등에 있어서는 전공간의 복수전공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학교급간 연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교급별 복수전공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는 앞으로 농·어촌 인구의 과소화 현상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통합이 현재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도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학교급간 연계 자격증은 교원 수급과 교사의 지도능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초·중등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원대학교의 교원 양성체제는 교원양성을 위한 목적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도 수월하며 양성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물적·인적·재정적 자원의 비효율성 문제도 개선할 수 있다 점에서 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있어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명수, 2002; 김명수, 2003).

초·중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체제의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교원 양성기관을 대학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뿐만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양성기관을 대학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은 보다 심도 있는 교사교육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 요구되는 수준 높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양성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과 관련된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의 도입은 필수적이지만, 이를 비교육적인 논리로
조급히 시행하려 한다면 현재의 문제점들보다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교사는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양성교육기관에서
완성되어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 교원 양성체제의 개편은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이는 예비교원들에게 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대한
책무성을 각인시켜 주려는 노력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이다. 그러나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기관 도입은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지원자들의 선호도 변화, 늘어난 교육기간만큼의 적절한 보상체제 마련 등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풀어내야 하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현행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은 중등교사의 양성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며, 대학별로 수업연한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수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치원 교사 양성체제의 개편은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들의 교육연한 차이를 반영하여 유치원교사 자격증의 등급을 학력에 따라 차등화하거나 유치원교사 양성기관들 간 교육 연한의 상향조정과 함께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이 같은 수준의 교육연한을 가지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유치원교사 양성기관마다 다른 수업연한의 차이가 유치원교사의 자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제기되고 문제는 수업연한의 차이를 유치원 교사의 자격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교사 양성

체제 개편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방안으로는 — 비록 대부분의 전문대학에서 유치원 교사 양성 수업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상향되었다고는 하지만 — 유치원교사 양성기관의 수업연한을 4년제 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유치원교육과 교사의 질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조형숙, 이경민: 2004).

V. 결론

21세기의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는 교원들에게 정보화 능력, 외국어 능력 등 많은 전문적 자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요구는 현행 교원 양성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교원 양성체제의 개편은 양성기관이 사회적 책무성을 인식하고 예비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교원 양성기관 스스로의 발전 노력과 함께 외부로부터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원을 확보하는 일에는 교육계 내의 요인들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요인들 또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양성체제의 개편은 사회·문화적인 여건에 적합한 체제를 충분한 기간 동안 검증한 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유능한 인재를 교직에 유인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의 도입은 필수적이지만, 이를 비교육적인 논리로 조급히 시행하려 한다면 현재의 문제점들보다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교사는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양성교육기관에서 완성되어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 교원 양성체제의 개편은 꼭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며, 이는 예비교원들에게 교원으로서 지녀야 할 교육적·사회적 요구에 대한 책무성을 각인시켜 주려는 노력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1). *교직발전종합방안*.
 김명수(2002). *교원 양성체제 개편 방향*.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24차 하계 학술대회 발표집, 163-88.
 김명수(2003). *유·초·중등교원 통합양성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송광용(2004). *교원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5-25.
 신상명(2002). *교원 양성체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24차 하계 학술대회 발표집, 137-61.
 조형숙, 이경민(2004). *영유아교사 양성체*

제의 정비. 2004년도 중앙유아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10-36.

허병기(2004). 교사양성기관 '교육의 과정'이 지향할 점. *새교육 통권 596호*, 34-40.

김명수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기획실장 및 교육연구원장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이다. 주요 저서로는 『학교재무관리의 이론과 실제(공저)』, 『교육실습의 이론과 실제(공저)』, 『교육경제학 백과사전(공저)』 등이 있다.